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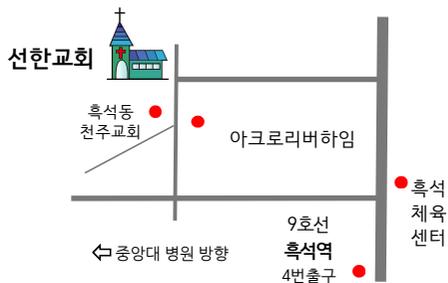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1부 주일 오전	9:30		
2부 주일 오전	11:00	믿음의 씨앗 (유아부)	오전 11:00 여호수아회 오후 2:00
3부(청년) 오후	1:00	선한 꿈 (유초등부)	오전 11:00 요셉회 오후 2:00
주 일 오후	3:30	파워틴 (청소년부)	오전 11:00 바울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년부	오전 11:00 루디아회 오후 1:00
금 요 기도 회	금요일 저녁 8:30	비전위십	오전 11:00 마리아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오전 11:00 드보라회 오후 2:00
셀가족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오전 11:00 에스더회 오후 2:00

섬기는 분들

사역자	담임목사 임춘배	국내선교사	오인숙, 한배선
	교육목사 정용준	협력교회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협동목사 홍진표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교육전도사 윤영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협력전도사 오효남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퇴장로	고상돈, 김대희 박희태, 유신웅 조윤익	해외협력선교사	김만조, 이금춘, 조나단
장로	편도선 (집사장) 박영근, 윤호중 조계승, 이태수	관리장로	손석규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36,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고후 9:6)
whoever sows generously will also reap generously

실천사항 물질 심기 기도 심기 복음 심기

삶의 방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눅 12:20)



담임목사 임춘배

**주일
예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인도: 임춘배 목사

1부		2부	
기원	인도자	찬양	JoyAnd 찬양팀
찬양과경배	26장 (통일찬송가 14장)	대표기도	편도선 장로
교독문	교독문 105번 (감사절 1)	인사말	임춘배 목사
찬양과경배	589장 (통일찬송가 308장)	간증	김대희 장로
기도	다 함께	특송	김미숙 권사
성경봉독	누가복음 12장 16~21절	찬양	성가대
설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임춘배 목사)	스킷드라마	떨어지지 않는 의자
		성경봉독	누가복음 12장 16~21절
환영 및 광고	인도자	말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임춘배 목사)
파송의노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축도	임춘배 목사	광고	임춘배 목사
		찬양	589장 (통일찬송가 308장)
		축도	임춘배 목사

성도의 교제 & 식사

**주일
오후**

오후 3:30

사회: 윤영 전도사

찬양	Joy And 찬양팀
기도	다 함께
성경봉독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설교	우리가 교회입니다 (윤영 전도사)
찬양	찬송가 546장(통일찬송가 399장)
기도	윤영 전도사

**수요
예배**

오후 7:30

인도자: 정용준 목사

Born Again (요한복음 3장 1~5절)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안내**
 - 1) 주일 11시 예배는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 2) 교회헌금계좌: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 3) 오늘 점심 봉사는 마리아회입니다.
 - 4) 주차안내
 - ① 중앙대 정문 주차장 이용.
(네 시간 주차: 2천원권 / 네 시간 이상 주차: 5천원권).
* 주차권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② 흑석종합사회복지관 무료 주차 가능.
- 추수감사주일 새생명축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부 예배 때 축제예배와 새생명축제가 있습니다.
* 오늘 점심 식사는 손님들이 먼저 식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주일 주차안내**

다음 주일(24일)은 중앙대 논술 시험으로 인해 중앙대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담임목사 동정**

이번 주 월~금요일 기도원에 다녀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례**
 - 1) 박창현 집사님의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 2) 정영기 집사님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영적인 추수를 위해 힘쓰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찬송 : '주의 진리위해 십자가 군기' 358장(통400)

본문 :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 용기는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렵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담대하라'고 명령하지만 인간의 노력과 힘에 의지하여 스스로 담대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담대하라'는 명령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약속이 뒤따릅니다. 우리의 용기의 근원은 나의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용기는 모험주의나 영웅주의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은 정서적 불안이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절박한 마음에 뿌리를 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무모한 시도를 하거나 과도하게 자신의 능력을 어필하며 인정받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참된 용기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는 무게감이 너무 컸습니다. 심리적 무게감은 두려움으로 확장되곤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군사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었습니.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어두운 방에서 옷걸이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놀랐을 때 엄마가 와서 함께 침대에 누워서 "괜찮아"라고 다독거리면 금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하는 길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워서 '내가 잘 할 수 있을까'라며 걱정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잘 할 수 있을 거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믿으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용기는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의 용기의 근원은 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보다 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울 때마다 지금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 생각하십시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씩 믿음으로 두려움에 맞서 전진하십시오.

제 목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눅 12:16~21)

서 론

세상에서 물질의 풍성한 추수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위한 영적 추수는 더욱 중요합니다.

1. 더 중요한 추수

- (1) 예수님이 들려주신 한 부자의 이야기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러면..."
- (2) 우리 영혼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 9:27)
- (3) 죽음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가? 준비하지 않았다면 "어리석은 사람아!"
- (4)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법: ①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요 3:16, 요 1:12, 행 4:12) ②상 받을 일을 행함(계 22:12)
- (5) 목자이신 예수님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인도해 주신다 (마 9:36, 시 23:1~2)

본 론

2. 교훈

- (1) 부자가 어리석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 (2) 나는 죽음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가?
- (3) 준비해야 할 두 가지는 무엇인가?

결 론

물질의 추수보다 더 중요한 영혼을 위한 추수를 놓치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2부 예배 기도	편도선 장로	이태수 장로
2부 예배 헌금	서창덕 집사	김재준 집사
오후 예배 기도		김희상 집사
주 방 봉 사	마리아회	청년/청소년부

매일 Q.T.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재림	날짜 : 11월 18일 월요일
찬양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본문	요한계시록 1:1~8	
말씀요약	하나님이 요한에게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리스도는 장차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전능자이십니다.	
목상질문 1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1:1~6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요한에게 전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려 힘쓸 때 내가 누리는 복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재림의 장중한 선언 1:7~8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엄한 재림 장면을 어떻게 묘사했나요?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지금 나의 신앙과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한절묵상	요한계시록 1장 3절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읽고 듣고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 습득의 과정을 거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과 혼연일체가 되어 말씀을 믿고 그에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핍박의 때일수록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지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영적 경각심이 말씀을 더 가까이하게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주관하시는 주님의 손에 제 삶을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이 친히 전하시는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구원의 복음을 힘써 증언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개인 성경 공부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으로"	
찬양과 기도	갈보리산 위에 (새 150)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목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묻힌 존 헤론(John W. Heron)은 미국 북장로회 선교회에서 최초로 한국 선교사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는 앨런, 언더우드에 이어 1885년 조선에 입국해 곧바로 의료선교에 헌신했습니다. 미국 테네시 의과대학이 생긴 이래 가장 우수한 성적을 받은 그는 학교로부터 수련을 마친 후 교수로 남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부흥회에서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미지의 땅으로 가라!"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헤론은 조선에서 선교사를 요청한다는 한 잡지의 글을 읽자마자 조선 땅으로 갈 것을 결단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의사였기에 앨런을 도와 서울 제중원에서 사역했습니다. 고종 황제의 시의(侍醫)로 활약했고, 가난한 백성을 돕는 의사로 헌신했습니다. 조선에 온 지 5년째 되던 1890년 여름, 그는 환자를 돌보다가 이질에 걸렸고 3주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환자를 돌보면서 무리한 것입니다. 34세의 젊은 나이에 순교한 그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라는 유언을 남기고 임종했습니다. 양화진에 있는 그의 묘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적혀 있습니다. 존 헤론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산 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목숨을 바쳐 사명에 충성한 사람들의 삶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나누어 보세요.
말씀나누기	요한계시록 2:1~11
목상포인트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기에 주님께 책망받았습니다. 우리도 고난 앞에서 언제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포기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임을 명심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 주님을 갈망하며 형제 사랑에 힘썼던 처음 마음을 잃었다면 회개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진정한 부요함은 재물을 얼마나 가졌는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는지로 판명됩니다. 삶 속에 있는 환난이나 궁핍보다 주님이 더 크심을 기억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견지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요한 사람입니다.
관찰과목상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위한 인내로 칭찬받은 한편, 주님께 어떤 책망을 받았나요?(4절)
적용하기	내가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가졌던 감격, 열정, 사랑 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주님을 만나 감격하고 은혜를 간구하며 순수하게 신앙을 이어 가던 처음 마음을 회복하게 하소서.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충성하는 참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진리와 성결을 지켜 왕적 통치권을 얻는 교회	날짜 : 11월 22일 금요일
찬양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본문	요한계시록 2:18~29		
말씀요약	눈이 불꽃 같은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을 보인 그들은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많았지만, 주님의 종들을 행음과 우상 숭배에 빠뜨린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습니다. 주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며, 이기는 사람에게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실 것입니다.		
목상질문 1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라 2:18~23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께 받은 책망은 무엇이었나요? 생업과 연결되는 일이 진리와 성결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상질문 2	주님의 일을 지킬 때 받는 복 2:24~29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요?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면 주님은 내게 어떤 상급을 주실까요?		
한절목상	요한계시록 2장 25~26절 성도의 삶에는 일평생 굳게 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이세벨의 행위'와 대조를 이루는 '내(주님의) 일'이라고 하십니다(20, 26절). 주님의 일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입니다(19절). 성도는 주님의 일을 자신의 일로 삼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시는 날까지 그 일을 힘써 감당해야 합니다. 사탄의 온갖 방해 공작에도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하는 것이 이기는 자의 삶입니다. 그 삶의 끝에 기쁨과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제 삶의 간절한 소망은 믿음과 사랑, 섬김과 인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마음과 의도까지 살피시는 주님께 부끄러움 없이 드러지는 제 삶이 되게 하소서.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로 거룩해져 주님과 함께 누릴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소서.		

매일 Q.T.		영광의 주님을 항상 바라보십시오	날짜 : 11월 19일 화요일
찬양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본문	요한계시록 1:9~20		
말씀요약	빛모섬에서 성령에 감동된 요한은 그가 보시는 것을 일곱 교회에 써 보내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일곱 금촛대 사이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인자 같은 이가 계신 것을 보고 엎드려집니다. 부활하셔서 세세토록 살아 계신 주님이 요한에게 그가 본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목상질문 1	영화로우신 그리스도 환상 1:9~16 요한이 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할 때, 예배하는 나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목상질문 2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1:17~20 두려워하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위로하시며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내 삶에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 어디인가요?		
한절목상	요한계시록 1장 17~18절 죽은 자의 외침은 아무 능력이 없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승리와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사망 권세를 멸하신 승리,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의 권세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묵상으로 부활의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성도의 능력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제가 처한 고난은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볼 때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의 위엄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두려움에 엎드려진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매일 Q.T.		첫사랑을 회복하고 충성하는 교회	날짜 : 11월 20일 수요일
찬양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본문	요한계시록 2:1~11		
말씀요약	주님은 한때 수고하고 인내했지만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며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을 겪은 서머나 교회에는 생명의 관을 주시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상질문 1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2:1~7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 어떤 책망을 받았나요? 지금 나는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목상질문 2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2:8~11 환난과 궁핍을 겪은 서머나 교회에 주님이 주신 권면은 무엇인가요? 믿음을 흔드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죽도록 충성할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요한계시록 2장 11절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 ‘말씀을 듣고 이기라’고 권면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로 신실함의 열매를 맺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한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이고, 둘째 사망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불 못에 던져져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영생’이라는 큰 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청종하면 이기는 인생이 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제게 주신 생명의 은혜를 경험한 후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여전히 제 안에 있는지 돌아봅니다.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겨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 버린 줄도 몰랐던 저를 용서하소서. 첫사랑의 마음을 은혜로 회복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매일 Q.T.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교회	날짜 : 11월 21일 목요일
찬양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 날까지		
본문	요한계시록 2:12~17		
말씀요약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서 사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 좌우에 날 선 검을 가지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들 중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충성된 증인이 있음을 아시지만, 악한 유혹에 넘어간 자가 있다며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감추셨던 만나와 흰 돌을 주실 것입니다.		
목상질문 1	사탄의 보좌가 있는 도시 2:12~13 영적 측면에서 버가모 지역은 어떤 도시였나요? 다수가 우상을 숭배하는 상황에서 나는 그것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상질문 2	재물과 음행에 미혹된 사람들 2:14~17 버가모 교회의 몇몇 성도가 빠진 죄악은 무엇이었나요? 재물과 음행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나는 어떤 기준을 정하고 살아가나요?		
한절묵상	요한계시록 2장 16~17절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 ‘회개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들에게 ‘이기는 삶’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세상과의 타협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감추셨던 만나’와 ‘흰 돌’을 주십니다.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흰 돌’은 무죄를 상징하거나 당시 특별한 만찬에 참여할 수 있었던 입장권으로 봅니다.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를 얻고,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선물을 받습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사탄의 권세로 가득한 세상에서 오직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드는 사람이길 원합니다. 물질과 쾌락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보다 더 앞세우는 우상이 있는지 늘 점검하게 하소서. 날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제 마음과 삶을 무너뜨리는 죄와 싸워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